

어휘를 통한 정의적 텍스트 생산 전략

김중신*

<차 례>

- I. 서론
- II. 어휘를 통한 텍스트 내적 소통과 외적 소통
- III. 발산적/수렴적 사고와 어휘 생산 전략
- IV. 어휘 연결망을 통한 정의적 텍스트 생산 전략
- V. 결론

I. 서론

어휘(語彙, vocabulary)는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의 총체를 말한다.

하나의 언어는 그 언어를 구사하는 각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생산한 텍스트의 기초 단위가 되는 어휘는 그것을 구사하는 특정 개인이 갖고 있는 사고의 초기 단계가 되기도 한다. 어휘는 이효석 문학에 나타난 어휘, 중세 국어의 어휘, 조선족 방언의 어휘, 법률학의 어휘 등과 같은 용례로 쓰인다.

숙련된 모국어 화자라면 몇 개의 어휘만으로도 하나의 문장을 유추해 낼 수 있으며 심지어는 텍스트까지 생산해 낼 수 있다.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은 생산자가 갖고 있는 어휘의 총합 중에서 무수한 선택과 배제

*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그리고 결합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의 의미 영역들이 대체로 모여 화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면 그 텍스트는 독자들의 수용 의지를 감퇴시킨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어휘는 여러 개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의 문맥적 의미는 텍스트 생산자의 개인적 경험과 관련짓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독자들의 수용 욕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휘의 의미 영역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생산자들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고 체계를 동원해야 한다.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어휘를 선택, 배제, 결합하는 과정이 곧 사고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산자의 독특한 사고력이 그대로 텍스트에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 굳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생산자가 하나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계가 중심 어휘를 발견 혹은 생산해 내는 일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담론(변론, oration)을 하나의 정언(定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유형을 다섯 가지 조작행위로 분류한다. 이러한 조작 행위는 발견(發見, inventio : 당신이 말할 바를 발견하다), 배열(配列, dispositio : 발견된 것을 배열하다), 구연(口演, elocutio : 단어들로 장식하다), 실연(實演, actio : 행위하다, 공표하다), 기억(記憶, memoria : 기억에 명령하다)들이 바로 그것이다.¹⁾ 여기에서 발견과 배열은 곧 어휘의 생산과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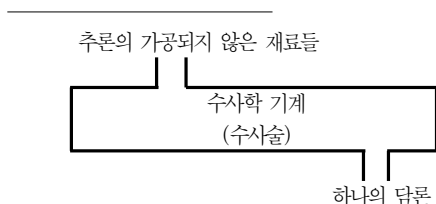
문학 연구에서 흔히 문체론이라고 지칭하는 분야가 특정 작가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적인 어휘나 통사적 구조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체는 곧 그 작가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작

1) 롤랑 바르트(R. Barthes)가 설명하고 있는 ‘수사학 기계’는 흥미롭다. 그는 디드로(Diderot)가 말하는 ‘긴 양말을 만드는 기계’의 원리를 적용해 ‘수사학 기계’를 설명하고 있다. 디드로의 기계는 입구에 집어넣는 것이 직물이라는 재료라면 출구로 나오는 것은 긴 양말이다. 마찬가지로 수사학 기계에서는 시적이 추론의 가공되지 않은 재료들이라면 마지막에 발견되는 것은 완전하고 구조화된, 설득을 위해 완전히 무장된 하나의 담론이라고 한다.

가가 구사하고 있는 문체는 곧 그 작가의 사고의 산물이며, 이는 작품에 구사된 어휘를 통해서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어느 비평가가 근대적 글쓰기의 양상을 ‘신체’와 ‘문체’로 양분하고 ‘신체’는 사유와 행위의 동인, 즉 문학적 주체의 위치에 놓이고, ‘문체’는 그 주체가 드러나는 방식, 즉 문학적 행위의 결과물의 위치에 놓인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²⁾ 이런 관점에서라면, ‘문체’는 시인과 소설가가 세계에 빌려준 몸을 다시 말에 빌려주는 데서 생겨나므로 비평가는 시인과 소설가가 남긴 말의 미세한 무늬, 즉 문체를 추적함으로써 그 비밀스런 몸의 자세를 엿볼 밖에 없다고 하면서 문체를 통하지 않고는 신체에 도달할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³⁾

따라서 텍스트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사고 체계에 기반하고 있는 어휘의 독특한 의미 사용을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를 통해서 텍스트의 내적 소통과 외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휘를 통해서 정의적 텍스트를 생산하는 전략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종오(2006), 『문체론』, 살림.과 아리스토텔레스, 이종오 역 (2007), 『수사학 II』, 리젠펜 참조.

2) 오형엽(2001), 『신체와 문체』, 문학과지성사, 5쪽.

3) 위의 책, 8쪽.

II. 어휘를 통한 텍스트 내적 소통과 외적 소통

장면 1.

	남자와 할머니의 외적 소통	남자의 내적 소통	할머니의 내적 소통
경상도 할머니	“왔데이.”	What day?	왔다.
남자 (미국인)	“먼데이.”	Monday.	무엇이 왔습니까?
경상도 할머니	“버스데이.”	Birthday.	버스(Bus)가 왔다.
남자 (미국인)	“해피버스데이.”	Happy birthday!	해피 버스군요.
경상도 할머니	“마을버스데이.”	마을 birthday	마을 버스다.

장면 2.

[문제] 다음 지문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병수 : 여보세요? 거기 만리장성이죠?

경호 : 네? 아녜요. 전화 몇 번 거셨어요?

병수 : 어, 거기 중국집 아니에요?

경호 : 아뇨. _____.

병수 : 앗! 죄송합니다.

(가) 한국집인데요. (나) 방석집인데요.

(다) 과부집인데요. (라) 가정집인데요.

<장면 1>은 얼마 전 모 정당의 여성위원이 한담을 하면서 나누었다 고 해서 관심을 모았던 ‘사투리 개그이다. 시골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할머니와 옆에 있던 미국인이 나눈 얘기를 활용한 유머이다. 할머니의 사투리를 영어로 들은 미국인과, 미국인의 영어를 사투리로 들은 할머니의 엉뚱한 단답식 대화가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장면 2>는 토크(TOKIC, Test of Korean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혹은 토크플(TOKFL, Test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이라고 하여 90년대 후반이후 몇 해 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유머로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외국인

들이 보는 한국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초 문민정부 집권 이후 한동안 세계화가 화두로 떠올랐을 때 외국어, 그 중에서도 영어에 대한 한국인들의 심리적 부담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늦은 밤 졸린 눈을 비비며 시험교재를 뒤적이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한번쯤 빠져 봤음직한 통쾌한 공상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 되면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겠지? 대신 코쟁이들이 한국어 시험 준비하느라 끙끙댔 테고’ 이러한 공상이 급기야 이런 유머를 낳았던 것이지요. 단순한 유머이지만 ‘이런 날이 왔으면’ 하는 네티즌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동남아 몇몇 국가에만 국한한다면 이런 날이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장면 1>에서는 경상도 할머니와 남자(미국인)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이다. ‘-데이’를 ‘다.’라는 종결어미의 경상도식 방언과 ‘day’라는 영어가 충돌하고 있고, 또한 ‘버스’를 ‘bus’와 ‘birth’의 발음상의 차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면 1>의 텍스트 생산자와 텍스트 독자 사이에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텍스트 생산자는 경상도 할머니와 미국인 남자가 서로 상대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의사소통을 진전시킴으로서 발생하는 상황을 전달하고 있고, 텍스트 독자는 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가 일으키고 있는 충돌을 보면서 유머를 읽어내는 것이다.

<장면 2>는 텍스트 내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병수와 경호는 ‘중국집’이라는 어휘가 중국인이 사는 집이 아니라 ‘중국음식을 파는 식당’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텍스트 외적인 측면에서는 일상적으로는 (라)를 정답으로 선택하겠지만⁴⁾ 오답으로 제시한 것이 유머를 유발한다. (가)는 ‘중국집’을 ‘중국인이 사는 집’이라고 어휘의 표면적 의미로 파악한 외국인들이 선택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유머를 유발하고, (나)와 (다)는 ‘방석집’⁵⁾과

4) 텍스트 상으로만 보면, 네 개의 선지가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

5) 참고로 사전에는 “방석이 깔려 있는 집이라는 뜻으로, ‘요정4’(料亭)을 달리 이르는 말”

‘과부집’이라는 어휘가 갖고 있는 텍스트 의외성 때문에 유머를 유발한다. 다시 말해 ‘-집’이라는 접미사로 쓰이는 어휘의 용례를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에게는 답지의 의외성으로 인해 유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장면 2>는 텍스트 내적인 면뿐만 아니라 텍스트 외적인 면에서도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면 1>과 <장면 2>를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텍스트의 소통은 텍스트 내적인 소통 여부와 관계없이 텍스트 외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텍스트의 존재 가치성(여기서는 유머)은 어휘가 갖고 있는 의미 영역의 충돌 혹은 확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⁶⁾

따라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한 텍스트 생산은 궁극적으로 주어진 어휘가 갖고 있는 의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휘의 의미 영역을 좀더 적극적으로 충돌하거나 확장하는 등의 생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문학에서의 ‘낯설게 하기(Ostranenie)’이다. ‘낯설게 하기’는 문학의 본질적 속성을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어휘의 의미적 의외성을 가장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다. 이것은 시와 소설 등 문학의 장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시에서는 일상적인 언어의 의미 영역을 벗어나는 시어에 의해, 소설에서는 사건의 전개에 대한 기대치의 위반으로 나타난다. 즉 시에서는 일상 언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운율, 비유, 역설 등을 사용하여 일상 언어와 다른 결합 규칙을 드러내며, 소설에서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비틀거나 인과 관계를 왜곡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이렇듯 어휘의 의외성은 생산자와 수용자간의 의미 충돌을 야기하여

로 풀이하고 있다.

6) 장면1에서는 영어와 경상도 사투리 사이에 존재하는 동음이의어 사이의 충돌, 장면2에서는 ‘-집’이라는 접미사가 갖고 있는 의미 영역의 확장에 의해서 유머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텍스트의 독창성을 담보 하게 된다. 어휘의 의미적 의외성은 텍스트 수용자만이 아니라 텍스트 생산자에게도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는 낮은 것이다. 텍스트 생산자와 텍스트 수용자의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의미 범주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적 의외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고 전략을 필요로 한다.

Ⅲ. 발산적/수렴적 사고와 어휘 생산 전략

정의적 텍스트란 텍스트 생산자의 정의적 성향을 담아내는 텍스트로서 정서 표현을 위한 텍스트를 말한다. 텍스트의 존재 가치가 독자의 수용 여부라고 한다면 인지적 텍스트는 수용자의 인지적 욕구와 호기심을 만족시킬 때 지속적인 수용 작용이 일어난다. 반면에 정의적 텍스트는 수용자의 정서적 감응과 동정심을 만족시킬 때 지속적으로 수용된다. 따라서 인지적 텍스트 생산 전략에서 요구되는 것은 합리성과 유창성이라고 한다면, 정의적 텍스트 생산 전략에서 요구되는 것은 독창성과 흥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적 텍스트는 인지적 텍스트에 비해 독자에게 수용의 강제성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함께 흥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의적 텍스트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단순히 주어진 의미 영역에서만 구사된다면 독창성과 흥미성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고 독자들의 수용 욕구도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⁷⁾ 정의적 텍스트의 독자들의 수용 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의 의미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일상적인 어휘의 의미 영역을 벗어나는 어휘를 생산해 내야 한다. 이러한 어휘

7) 중등학교 백일장에서 제출되는 텍스트나 학교 교지에 수록된 텍스트들의 내용이나 주제가千篇일률적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쉽게 알 수 있다.

를 환기시킬 때 유효한 것은 발산적 사고이다. 길포드(Guilford)가 제안한 발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는 이전에 없던 것 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생각해 내는 사고 능력을 말한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한 여러 가지의 해결 방법을 떠올리는 사고이다. 발산적 사고는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⁸⁾을 자유롭게 제시한다. 발산적 사고에서는 일상적이며 예측 가능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오랜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 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기억은 저장 기간에 따라 수초 동안만 기억되는 단기 기억(短期記憶, short-term memory), 며칠 정도 지속되는 최신 기억, 수개월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기 기억(長期記憶, long-term memory) 등으로 세분된다. 그런데 단기 기억이더라도 서로 관련이 있는 개별 정보를 조직화하여 기억하거나, 기억할 때와 저장할 때의 상황이 서로 비슷하거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때 등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더 많다.⁹⁾ 따라서 장기 기억 속의 어휘들은 저장될 당시의 상황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런 어휘들을 환기하면 생산자의 개별적 경험이 제시되게 된다. 즉 독특하면서도 창의적인 텍스트는 생산자의 장기 기억에 잠재되어 있는 어휘¹⁰⁾를 환기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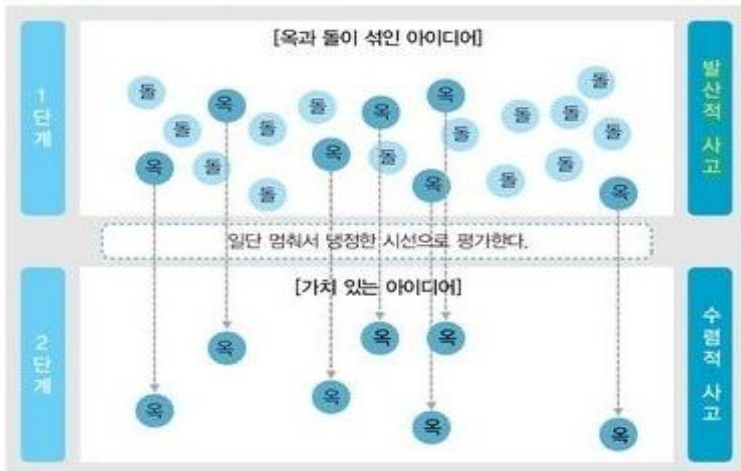
그런데 발산적 사고에 의해 환기된 여러 방안들이 그대로 문제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방안들은 문제 상황에 맞게 조직화되고 정

8)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텍스트 생산의 경우라면 어휘뿐만 아니라 단락, 구성 등 텍스트와 관련된 모든 전략을 말한다.

9) 조원호(2005), 『학교 교육에서의 심리학』, 국민대학교 출판부; 신종호 외(2006), 『교육심리학—교육 실재를 보는 창』, 학지사 참조.

10)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으로 심장이 마비되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저체는 요법으로 의식이 회복한 환자를 조사해 본 결과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의학계의 보고는 주목할 만하다. 오랜 기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의식을 회복한 환자들에게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으면 처음에는 ‘전두환’이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식으로 대답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뇌 손상을 입으면 최근 기억을 만들고 활용하는 뇌의 ‘해마’ 부위가 먼저 손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래된 기억이 저장되는 뇌 부위는 늦게 파괴되는 경향이 있어 과거 기억부터 재생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0. 12. 17. 참조

련화되어야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발산적 사고에 의해 옥과 돌이 섞인 아이디어가 창출해 내지만 이 중에서 돌을 버리고 옥을 가려내는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그림 1>)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는 발산적 사고에 의해 제시된 여러 대안 가운데 문제 상황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¹¹⁾



〈그림 1〉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관계

IV. 어휘 연결망을 통한 정의적 텍스트 생산 전략

정서 표현을 위한 정의적 텍스트 생산 전략은 생산자의 ‘정서나 독특한 체험, 그리고 기발함’이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전략은 주어진 어휘를 바탕으로 하여 발산적 사고를 통해 이와 유사한 의미 영역에 있는 어휘 중 유사한 것과 상이한 것을 찾아내고, 또한 텍스트 생산자만이 갖

11) 산업능률대학종합연구소(2008), 『지적 사고의 기술』, 미래의창, 91쪽.

고 있는 독특한 의미 영역의 어휘(무관 연상)를 찾아내는 사고 활동을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일정한 의미 영역을 갖고 있는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¹²⁾

먼저 바탕어¹³⁾를 선정한다. 바탕어는 발산적 사고의 시초가 되는 어휘이다. 대체로 백일장이나 교실에서 글쓰기 상황에서의 주제어가 된다.

- ① 단계 1 : 바탕어(주제어)를 중심에 두고, 유사연상과 상이연상, 무관연상에 해당하는 어휘를 하나씩 찾아서 연결한다.

유사연상은 바탕어와 비슷한 느낌이나 이미지를 주는 단어를 연상하는 것이며, 상이연상은 바탕어와 반대의 느낌이나 이미지를 주는 단어를 연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관연상은 자기에게만 생각나는 느낌이나 이미지 가진 단어를 연상하는 것이다. 대체로 무관 연상에 의해 생산되는 어휘는 생산자의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거나 개별적 체험과 관련된 어휘들이다. 예컨대 하나의 어휘는 여러 개의 다의적 의미를 갖기도 하며, 또한 동음 이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바람1’은 ‘기압의 변화 또는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바람2’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바탕어 ‘하늘’이 주어졌을 때 ‘하늘→바람→공기→비’로 연상하는 것은 ‘바람1’을 사용한 것으로 수용자의 1차적 수용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과 ‘바람1’은 인접어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늘→바람→야망→좌절’로 연상한 것은 ‘바람2’를

-
- 12) 정의적 텍스트 생산 전략을 구사할 때에는 여럿이 함께 조별로 활동하게 보면 독창성이나 흥미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여러 사람이 가진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생각들을 조율하고 가다듬는 과정에서 다수가 만족하는 보편적인 의견이 채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적 텍스트 생산 전략은 조별 활동보다는 개별 활동이 더 효과적이다.
- 13) 자유연상법(free association)에서는 어떤 말을 주고 곧 생각나는 말을 반응시키는 방법으로 처음에 주는 말을 자극어(刺戟語), 연상한 말을 반응어(反應語)라고 한다. 여기서는 자유 연상의 목적인 텍스트 생산이므로 바탕어 혹은 주제어라고 명명한다.

사용한 것으로서 수용자의 1차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늘’과 ‘바람1’은 유사 연상이 되지만, ‘바람2’는 다의어로서 무관 연상이 된다.

- ② 단계 2 : 바탕어와 동일한 문장 성분에 해당하는 2개, 상이한 성분 1개를 제시한다.

대체로 자유 연상의 바탕어는 체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연상 과정에서 용언을 추가하면 텍스트의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게 된다. 위의 예시에서 ‘하늘→바람→들다→과정’로 연상하는 것은 ‘바람’의 다의적 의미, ‘몰래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짐’이라는 의미를 환기하게 되는 것이다.

- ③ 단계 3 : 바탕어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듯이 4~5 단계의 연결망을 형성한다.

바탕어에서 1차적으로 연상된 세 개의 어휘를 중심으로 4~5 단계에 걸쳐 연상어를 찾아낸다. 그런 다음 어휘 묶음(크로스터)이 큰 것을 이루는 어휘 연결축을 중심으로 중심 화제로 삼는다.

생산된 어휘는 수용자들의 수용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있는가 하면 생산자의 개인적 경험이 바탕이 되는 어휘가 있다. 이런 어휘와 연결되는 어휘 묶음은 텍스트의 생산 유발 효과가 뛰어나게 되며, 따라서 어휘 연결축의 묶음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어휘 묶음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를 바탕으로 중심 화제를 삼게 되면 기발하고 독특한 텍스트를 형성하여 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의 <그림 1>은 이상의 단계를 거쳐서 생산된 어휘의 연결망의 사례이다.

심부 어휘를 핵심 소재로 삼고 주변주의 어휘를 서술부로 삼게 되면 구체적인 진술이 된다. 예컨대, ‘낙엽→바스락거리다→포테토칩’의 경우, ‘포테토칩을 먹을 때는 낙엽 밟는 소리가 난다’ 보다는 ‘낙엽 밟는 소리가 포테토칩 씹는 소리 같다.’와 같이 표현했을 때 창의적인 텍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 ⑤ 단계 5 : 어휘를 연결하여 텍스트를 생산할 때는 반드시 뒷 부분에 서는 중심부로 돌아와야 한다.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뻗어 나간 가지가 마지막에는 중심부의 바탕어와 연결되어야 일관된 주제의 글이 나올 수 있고, 독자의 호기심을 계속 유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제와 동떨어진 내용의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텍스트 생산 전략을 살펴 보자. 다음에 제시된 전략은 바탕어 ‘하늘’(<그림 2>)에 의해 생산된 주제문이다.

(가) ‘하늘→땅→부동산→복부인’

(가)-1 집 앞에 있는 ‘하늘’ ‘부동산’에는 늘 똥똥한 ‘복부인’들로 북적인다. ‘땅’만 중히 여기고 사람을 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들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른다.

(나) ‘하늘→구름→비→가수왕’

(나)-1 ‘하늘’을 봐야 ‘구름’을 볼 수 있듯이 ‘비’를 보면 ‘가수왕’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비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이다.

(다) ‘하늘→땅→흙→나무’

(다)-1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다. ‘흙’에 뿌리를 두고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곳곳이 자란다.

(가)는 ‘하늘’이라는 바탕어를 중심으로 ‘땅→부동산→복부인’이라는

연계어로서 주제문을 생산한 것이다. (가)-1은 이를 주제문으로 생산해 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늘을 ‘천(天)’이라는 의미역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하늘을 하나의 고유명사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으로서 수용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나)에서도 ‘하늘→구름→비’까지는 일반적인 수용 범위 내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가수왕’으로 연상되는 순간, 가수 ‘비’라는 인물을 떠올려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즉 동음 이의어에 의한 상이 연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이 연상이 개입되면 텍스트는 생산자만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내용이 된다.

(다)는 대체로 무난한 연상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관 연상이 배제된 연결고리에서는 흥미로운 내용이 생산되기가 어렵다. 이처럼 발산적 사고에 의해 생산된 어휘 연결망을 통해서 주제문을 작성할 수 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전략에 의해 생산해 낸 텍스트 생산의 예이다.¹⁴⁾ 주제어 ‘낙엽’을 바탕으로 발산적 사고를 통한 자유연상도와 이를 기반으로 하여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 보자. <그림 2>는 주제어 ‘낙엽’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유연상도이다.

바탕어 ‘낙엽’을 중심으로 하여 1차적으로 ‘봄’, ‘커피’, ‘연기가 피어 오르다’를 연상하였고, 다시 3~5단계에 걸쳐서 어휘 연결망을 구축하였다.

(라)는 <그림 3> 중에서 ‘낙엽-커피-가루-흩어지다-친구’를 연계어로서 생산한 주제문이다. 대략 200자 정도로 생산된 텍스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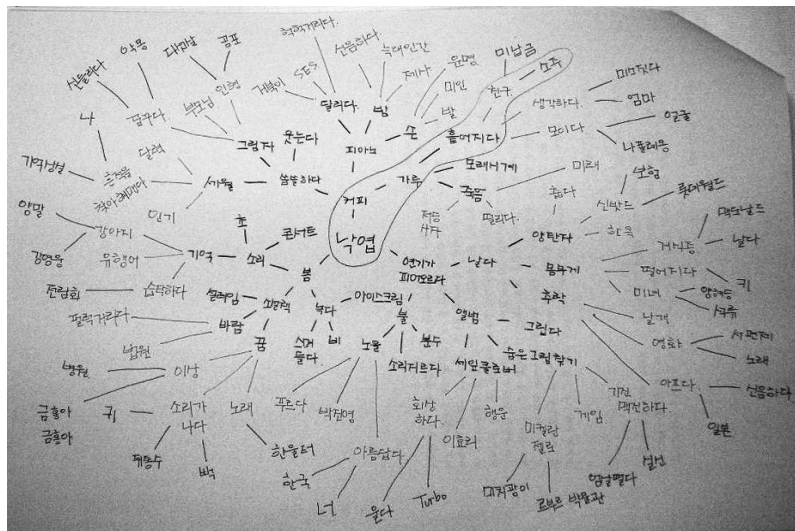
(라) 1차 텍스트 생산(200자)

“아침 일찍 길을 가다 낙엽 태우는 냄새를 맡았다. 진한 커피 가루 향이 공기 중에 섞여 있다. 시간도 저렇게 태워버릴 수 있을까? 모래 가루가 되어 산산이 부서져 흩날리다 이내 사라지도록... 한참을 생각하며 시간을 태웠다. 모래 가루가 되어 흩날린다. 내 뒤편 그 가루가 다시 소복이 쌓여 있다.

14) 이것은 2010년 7월 초 경기도 소재 모 대학의 국문과 학생들에게 텍스트 생산 전략을 학습한 후, 모둠별로 생산해 낸 텍스트의 한 예이다.

불현듯 예전의 친구가 낙엽과 함께 떠오른다.”

(마)는 이를 토대로 다시 700자 정도의 텍스트를 생산한 것이다.



〈그림 3〉 바탕어 ‘낙엽’을 중심으로 한 텍스트 생산 연상도

(마) 2차 텍스트 생산(700자)

아침 일찍 길을 가다 낙엽 태우는 냄새를 맡았다. 진한 커피 가루 향이 공기 중에 섞여 있다. 어디선가 말아 봤음직한 이 내음. 흩날리는 낙엽 가루들이 내 마음을 한 순간 정지시킨다. 시간도 저렇게 태워버릴 수 있을까? 모래 가루가 되어 산산히 부서져 흩날린다 이내 사라지도록....한참을 생각하며 시간을 태웠다. 소리가 난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머리 속에서도 달그락 소리가 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무엇들이 하나 둘 바람을 타고 모래 가루가 되어 흩날린다. 내 뒤편 그 가루가 다시 소복이 쌓여 있다. 양옆을 돌아보니 어느새 내 어깨에도 옛날을 생각하게 하는 흔적들이 쌓여 있었다. 왜 난 이제야 그것을 보게 되었는가? 시간에 치여서 일에 눌려서 잊고 살아온 친구들. 그 놈들 잘 있겠지? 너희들과 만나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뛰어 다닌 게 나의 큰 즐거움이었는데 이제 앨범에서나 우리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겠구나. 함께 나눠가졌던 앨범 사이의 낙엽을 보며 커피 한잔에 웃음 한 모금 지을 수 있겠구나.

이상에서 다룬 발산적 사고(자유 연상)를 통한 정의적 텍스트 생산 전략은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이다. 주어진 어휘와 관련된 의미 영역에 해당하는 어휘와 자신의 독창적인 의미 영역에서 찾아 낸 어휘를 결합하여 독창적이고 흥미있는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최근 글쓰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텍스트 생산 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논술이나 논문, 보고서 등과 같은 인지적 텍스트 생산 전략은 ‘발상, 내용 생성, 조직, 집필, 퇴고’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규범화된 바 있다. 그러나 정의적 텍스트의 경우 이에 대한 규범적인 전략이 체계화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의적 텍스트는 개인의 독창성의 발휘가 중요하므로 무엇보다도 생산자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텍스트 생산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롭고 임의로운 텍스트 생산 능력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범화된 텍스트 생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글은 정의적 텍스트 또한 어휘의 생산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를 단기 기억에 저장된 어휘만 아니라 장기 기억에 저장된 어휘를 생산해 내는 것이 독창적이고 흥미있는 텍스트 생산 전략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단계적 전략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전략이라도 개인적 관심도나 공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범을 이루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의적 텍스트를 생산해 내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 하겠다.*

* 본 논문은 2011. 2. 28. 투고되었으며, 2011. 3. 15. 심사가 시작되어 2011.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중신(2004), “문학교육론의 쟁점과 과제”, 『청람어문교육』 제29집.
- _____(2006), “3일간의 소설 여행”, 대한교과서.
- 산업능률대학종합연구소(2008), 『지적 사고의 기술』, 미래의창.
- 신명선(2009), “국어 어휘의 담화 구성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어의미학회.
- 신명선(2010), “어휘 선택과 표현의 효과”, 『작문 연구』 10.
- 신종호 외(2006), 『교육심리학-교육 실제를 보는 창』, 학지사.
- 아리스토텔레스, 이종오 역(2007), 『수사학 II』, 리젠프 참조.
- 오형엽(2001), 『신체와 문체』, 문학과지성사.
- 이종오(2006), 『문체론』, 살림.
- 이충우(2001), “국어 어휘 교육의 위상”, 『국어교육학』 13.
- 조원호(2005), 『학교 교육에서의 심리학』, 국민대학교 출판부.

<초록>

어휘를 통한 정의적 텍스트 생산 전략

김중신

어휘(語彙, vocabulary)는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의 총체를 말한다.

텍스트 생산자는 하나의 텍스트를 생산하기 전에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계가 중심 어휘를 발견 혹은 생산해 내는 일이다.

정의적 텍스트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사고 체계에 기반하고 있는 어휘의 독특한 의미 사용을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를 통해서 텍스트의 내적 소통과 외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휘를 통해서 텍스트를 생산하는 전략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의 의외성은 생산자와 수용자간의 의미 충돌을 야기하여 텍스트의 독창성을 담보 하게 된다.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 어휘의 의미적 의외성은 텍스트 수용자만이 아니라 텍스트 생산자에게도 낯설다. 텍스트 생산자와 텍스트 수용자의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의미 범주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적 의외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고 전략을 필요로 한다.

발산적 사고(자유 연상)를 통한 정의적 텍스트 생산 전략은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주어진 어휘와 관련된 의미 영역에 해당하는 어휘와 자신의 독창적인 의미 영역에서 찾아 낸 어휘를 결합하여 흥미있는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의적 텍스트의 생산 능력은 어휘의 생산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생산자의 단기 기억에 저장된 어휘만 아니라 장기 기억에 저장된 어휘를 생산해 내는 것이 독창적이고 흥미있는 텍스트 생산 전략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전략이라도 개인적 관심도나 긍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 최소한의 규범을 이루는 전략을 제

시함으로써 정의적 텍스트를 생산해 내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 하겠다.

【핵심어】 어휘, 텍스트 내적 소통과 외적 소통, 발산적/수렴적 사고와 어휘 생산 전략, 어휘 연결망, 정의적 텍스트 생산 전략

<Abstract>

A Strategies for Affective Text Production through Vocabulary

Kim, Jung-sin

The vocabulary is the totality of used the word with a certain range. Text producers should be done several steps before producing text. The most important step is to discover the main vocabulary.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he strategies of producing the meaning of the unique vocabulary.

The strange vocabulary is caused the collision of text producers and receivers. So the unique text is produced. The strange vocabulary is strange for producers and receivers, they are the same everyday language in their lives. Because text producers and receivers are same ordinary vocabulary and the language.

We need a special thinking strategies for bringing out a strange language. Divergent thinking strategies through the production of affective text is aimed to produce a new text. It combines well-known vocabulary and the vocabulary is unfamiliar. Through this unique and interesting text could be produced. The production capacity of definitive text comes from the vocabulary of the production.

It needs the stored vocabulary of short-term memory in producers. As well as it needs the stored vocabulary of long-term memory too. This strategy is to produce original and interesting text. It is due to a gradual strategy of producing the interesting text.

【Key words】 Vocabulary, communic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text, divergent/convergent thinking production strategies of vocabulary, lexical networks, affective text production strategies